다시 일터로…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고향에서 설을 보낸 귀경객들이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 표를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파속 귀경…광주~서울 5시간 30분

광주·전남 설 연휴 잇단 교통사고·화재 2명 사망

목포·여수 등 일부 여객선 통제 하루늦은 귀성도

임진년 설 연휴(21~24일)가 4일간 이어져 귀성 및 귀경인파가 분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에 극심한 정체현상은 없었다.

하지만 강풍으로 인해 목포와 여수 연안의 뱃길이 막히면서 고향으로 향하던 귀성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고, 연휴 마지막날인 24일에는 눈까지 동반한 강추위때문에 호남·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포근·한산 귀성길, 추위·정체 귀경길=24일 광주·전남 지역은 순천이 아침 최저 영하 10.2도로 평년보다 4~6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호남권으로 유입됐던 130만여대의 차량들이 귀경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서울 구간 5시간30분, 목포~서서울 구간 5시간50분이 각각 소요됐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나들목~전주나들목 18.8km 구간 등이 정체돼 차량들이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영광나들목~행담도휴게소 51.7km 구간이 막히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 호남본부 관할 64개 영업소를 통해 광주와 전남·북으로 유입된 차량은 130만9722대로 이 시각까지 모두 120만1709대가 귀경길에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밤 9시께부터는 호남권 대부분 도로가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귀성길은 지난 21일 서울~광주 구간이 5시간20분 소요됐고, 지난 22일 서서울~목포 구간이 5시간 걸렸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9시를 기해 서해남부 전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 흑산도, 홍도 등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로 인해 지난 22일 목포항의 10항로 15척의 운항이 통제되는 등 목포·여수항 21개 항로 34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일부 귀성객들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3일 고향으로 향하기도 했다.

◇사건·사고 잇따라=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았던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후 9시32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군 백양사 인근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0여분간 혼잡을 빚었다. 이날 오후 4시21분께 여수시 율촌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신모(여·57)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께에는 신안군 지도읍 한 도로에서 귀성객 김모(62)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가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내(57)가 숨졌고, 김씨와 자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5시4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회사 대표 이모(4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20일 오후 7시45분께에도 담양군 무정면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일 평년기온 회복 주말엔 다시 강추위

설 연휴기간 이어졌던 강추위는 26~27일 잠시 평년기온을 회복했다가 휴일인 29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6~27일 사이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한 뒤 주말인 29일께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30~31일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상습 폭력 학생 경찰, 특별관리

경찰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따로 선별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가정환경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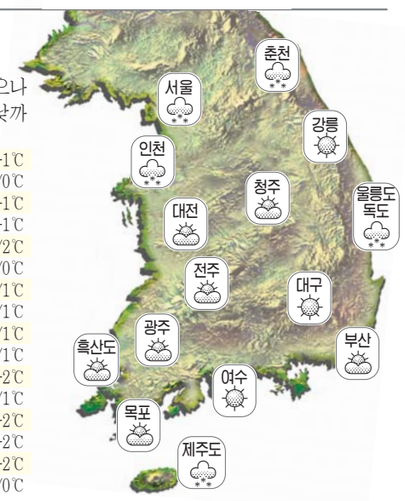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해짐 17시 53분 달뜸 08시 25분 달짐 20시 02분

오전까지 눈

아침까지 눈이 온 후 개겠으나 서해안 일부지방에서는 낮까지 눈이 오겠음.

광 주	구름많고 눈	-6/-1℃
목 포	구름많고 눈	-4/0℃
여 수	구름조금	-4/-1℃
나 주	구름많고 눈	-7/-1℃
완 도	구름많고 눈	-4/2℃
구 례	구름많고 눈	-7/0℃
강 진	구름많고 눈	-4/1℃
해 남	구름많고 눈	-5/1℃
장 흥	구름많고 눈	-5/1℃
순 천	구름많음	-5/1℃
영 광	구름많고 눈	-7/-2℃
진 도	구름많고 눈	-3/1℃
전 주	구름많고 눈	-7/-2℃
군 산	구름많고 눈	-7/-2℃
남 원	구름많고 눈	-8/-2℃
흑산도	구름많고 눈	-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밀물	썰물
목포	03:14 15:51	08:30 21:02
여수	10:36 22:40	04:02 16: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날 씨						
최저/최고	-7/4	-3/3	-3/2	-4/1	-6/0	-6/0

광주 중학 교사 1명당 학생수 20명꼴 전국 최고

전남 초등은 전국 최소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19.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4명으로 경북(14.3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4.6명,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14.8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인천(16.6명), 초등학교는 경기(19.6명), 중학교는 인천 · 광주(각 19.4명), 고교는 제주(16.4명)였다. 광주 초교의 경우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8.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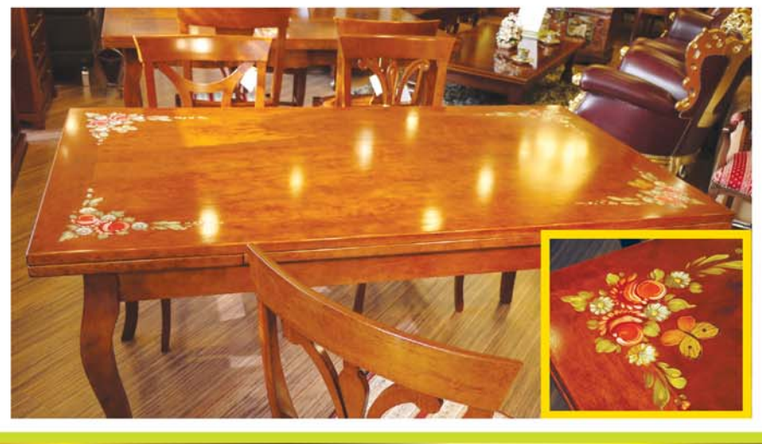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전북(12명), 초등학교는 전남(14명), 중학교는 경북(14.3명), 고교는 강원(12.8명) 지역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100424.com (천사24닷컴 2월10일 까지 임시오픈)

신상품 입점 : 100~300만원대 식탁/좌탁, PC책상, 거실TV장



1. 베로나 유화꽃식탁 4인세트 쇼핑몰가 20% 295만원 최종가=50%
2. 베로나 유화꽃좌탁 쇼핑몰가 20% 148만원 최종가=50%
(확장형 160+40+40×85cm 양쪽각 40cm 확장이 됩니다. 100% MADE IN ITALY)

100424.com 홍스페이스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 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